하나금융그룹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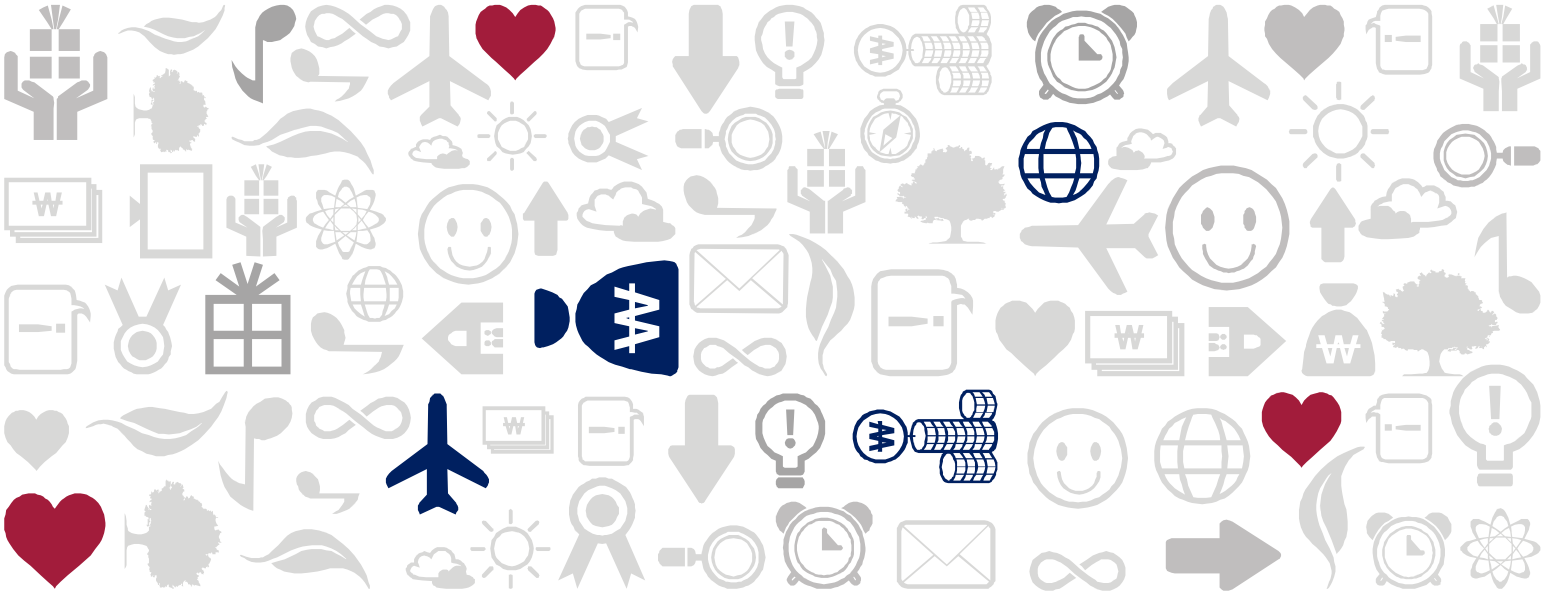
2013년 No.03

온퇴설계를 위한

KEB 행복가이드

국내 노후준비 현황 및 시사점

정년 60세 연장의 의미와 시사점



KEB 외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02) 2002 – 1147
	퇴직연금부	(02) 3788 – 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 – 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 – 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02) 6325 – 3014

Contents

이슈 포커스	국내 노후준비 현황 및 시사점 정년 60세 연장의 의미와 시사점	01
노후 재무설계	30대 직장인, 연금저축과 적극적 금융자산 운용 필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국내외 주식 및 펀드로 구성 6월 국내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 개선을 바탕으로 점진적 상승 전망	09
국내외 단신	英,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인 DA형 도입을 검토 사적 연금제도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로 고령화 리스크 대응 사적연금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및 자원배분 집중 필요	14
상품브리프	연금수급자 전용 수시입출식 예금인 연금통장	18
행복한 노후디자인	은퇴 이후 최고의 친구 – 배우자	20
하나 뉴스	하나은행, 미얀마 에이야와디은행과 본격적인 교류 확대 등	22
연금 통계		23

국내 노후준비 현황 및 시사점

수석연구원 정 승 희
(smiley77@hanafn.com)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하고 싶지만 당장의 생활비 부족, 자녀 양육비 등으로 추가적인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나 혹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응답하는 등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적 노후준비가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다행히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은퇴설계를 통해 노후준비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객과 금융기관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노후 준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30% 후반에 불과한 수준으로 개개인의 노후준비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동 보고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약 2주간 전국에 거주하는 20~60대 성인 남 · 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노후준비 실태를 점검해보고 향후 경제적 노후준비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50% 이상의 응답자가 노후준비를 위해 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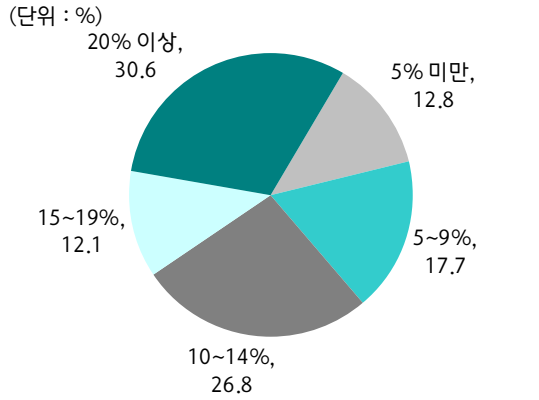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0%가 노후준비로 현재 은퇴를 대비하여 별도의 저축(혹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상의 경우 55% 이상이 현재 별도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20대의 경우 30.7%만이 별도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대체적으로 은퇴에 가까운 연령대일수록 노후준비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로는 연소득 5천 만원 이상인 경우 60%이상이 현재 별도의 노후준비를 실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단일수록 노후를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저축(혹은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현재 은퇴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별도의 저축(혹은 투자) 규모가 전체 가계 소득 대비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30.6%)가 가계소득의 20% 이상을 저축(혹은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60대 이상인 응답자의 경

우 44.0%가 가계 소득의 20%이상을 저축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자녀 양육 등으로 저축할 여유가 없는 3~40대의 경우 가계 소득의 10% 미만을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노후준비 수단으로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보험 및 연금, 예 · 적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한다는 응답자도 2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이미 은퇴에 접어든 60대의 경우 예 · 적금 비중이 보험 및 연금 비중에 비해 높았으며 펀드 및 주식투자 비중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타 연령대와는 다소 상이한 특징들이 나타났다. 보험 및 연금을 통해 노후준비를 한다는 응답자가 44.0%로 전체 평균(64.7%)대비 현저하게 낮은 것은 이미 동 연령대의 응답자들은 기존에 가입한 보험 및 연금 상품이 만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동 연령대에 특화된 새로운 보험 및 연금 상품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보유 금융자산 규모별로는 자산 규모가 클수록 펀드 및 주식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5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집단의 경우 노후대비를 위해 펀드 및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비중이 각각 52.6%, 42.1%로 1억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집단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가계소득 대비 저축에 따른 노후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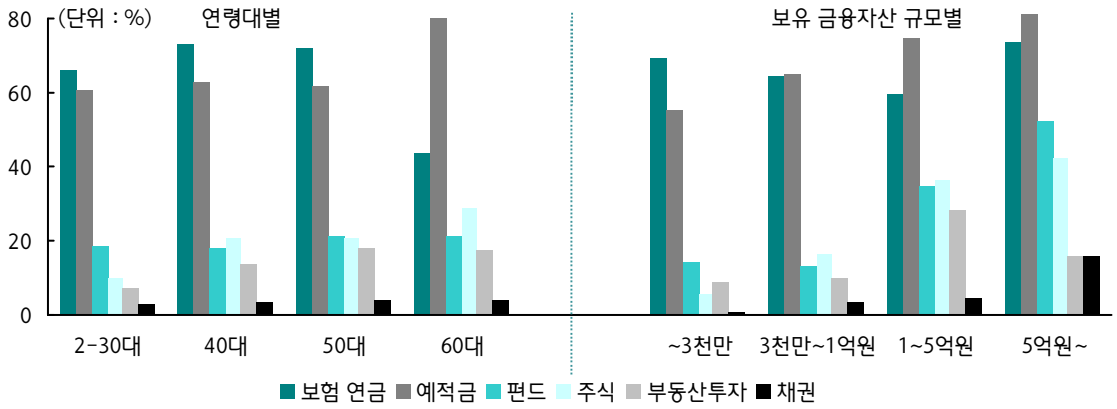


| 주 : n=530(별도의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

그러나 노후준비수준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

한편 예상보다 많은 응답자가 노후준비를 위해 별도의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현재 하고 있는 노후준비 저축의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생활유지를 위한 경제적 준비 정도는 전체 응답자가 평균 30.3% 정도라고 응답하

경제적 노후준비 수단



| 주 : 1) n=530(별도의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
2) 중복 응답

였으며 비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준비에 대한 준비 정도는 평균 3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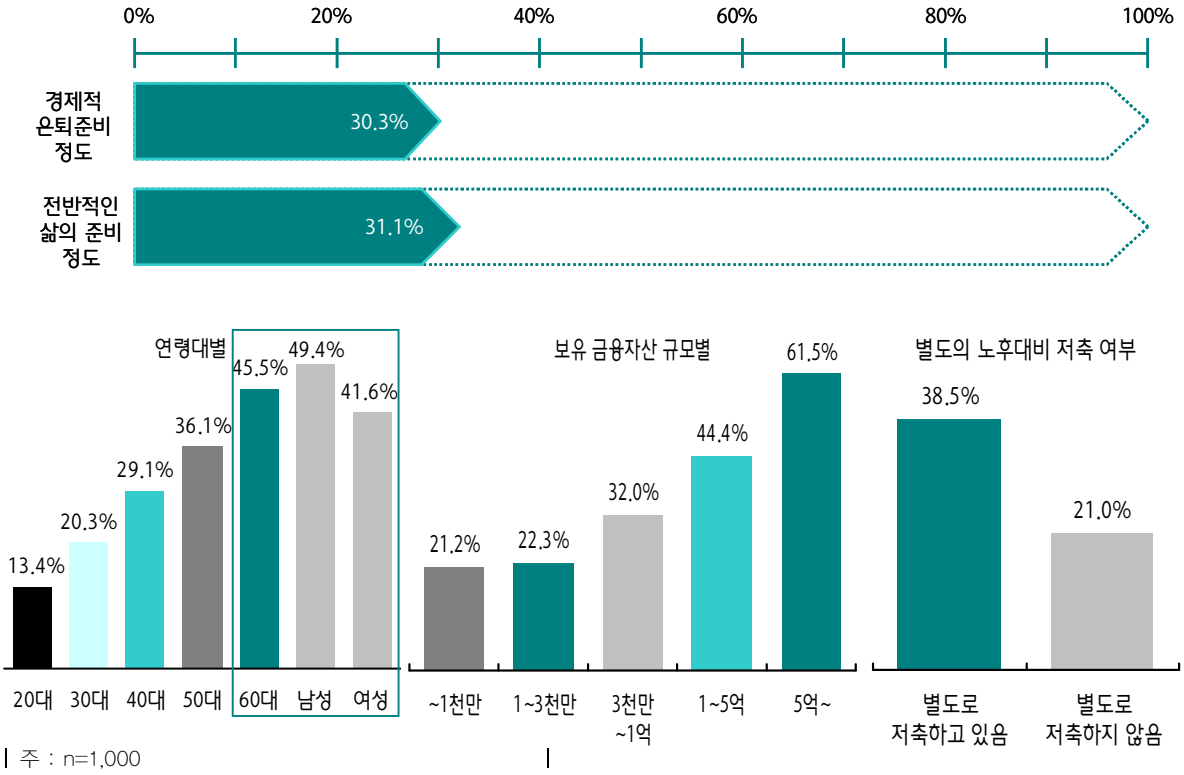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은퇴에 임박한 60대의 경우도 노후준비 정도는 50% 미만이라고 응답하는 등 노후준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여성의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41.6%라고 응답해 60대 남성(49.4%)과 큰 차이를 보였다. 비경제적인 은퇴준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준비 정도에 있어서도 60대 여성은 43.3%라고 응답하여 60대 남성(51.3%)에 비해 훨씬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에 비해 훨씬 긴 점을 감안할 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은 남성보다 7년이 길고 남성에 비해 결혼연령이 3년 정도 빨라 결국 여성들은 남편과 사별한 후 평균 10년 정도는 혼자 살아야 한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 등으로 취업 기간이 짧아 은퇴 이전에 노후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보유 금융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별도의 노후대비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경제적 은퇴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다수가 생활비 부족으로 노후준비에 어려움

그렇다면 현재 은퇴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별도의 저축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본인의 재정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

노후준비 정도 평가



주 : n=1,000

치 하는 결과로서 응답자의 61.0%가 현재 수입과 생활비 지출금액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생활비 지출금액이 더 크다고 응답한 바 있어 전반적으로 은퇴를 준비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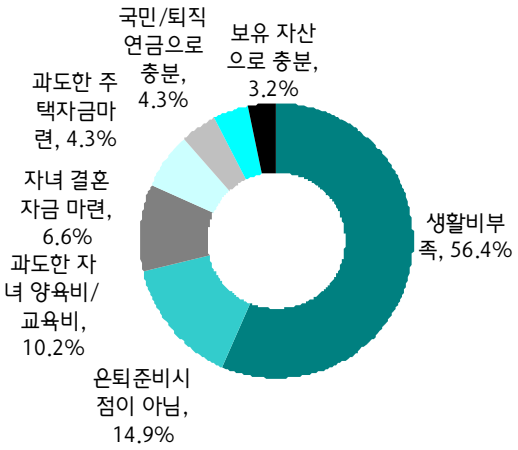
이어서 아직 은퇴준비를 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14.9%)과 과도한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10.2%)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생애 주기별로 주요 이벤트가 다른 만큼 연령대별 은퇴준비 부족원인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30대는 주택마련 자금 부담이, 4–50대는 자녀양육비가, 60대는 자녀 결혼자금 마련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다.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

다행히 은퇴를 대비한 경제적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노후준비 및 은퇴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각각 86점, 80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은퇴에 가까운 연령대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은퇴를 대비한 재무계획 수립과 저축 · 투자활동 시점에 대해 40% 이상이 3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노후준비는 이를수록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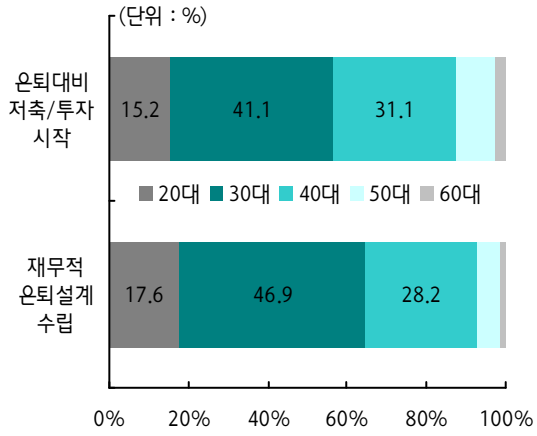
문제는 실행이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노후준비를 하고 싶어도 생활비부족, 자녀 양육비 등으로 추가적인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나 혹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노후준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은퇴설계를 통해 현재 자신이 처한 재무 사항을 점검해보고 노후를 위한 별도의 자금마련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은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고객은 관련 서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고, 금융기관은 부유층이 아닌 일반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후준비 부족 원인



주 : n=470 (별도의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응답자)

노후준비 시기



주 : n=1,000

정년 60세 연장의 의미와 시사점

연구위원 김 대 익
(kimdi@hanafn.com)

"최근 정년을 60세이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6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번 정년연장은 국내의 빠른 고령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정년연장의 글로벌 추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년연장에 따라 근로자들은 소득창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신연금저축의 가입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은퇴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연금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연령별 등 다양한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60세 미만으로 정할 경우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상시 30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은 2016년부터 시행하고, 300명 미만 사업 및 사업장이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2017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시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고용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일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등 변형 임금제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금번 정년연장은 빠른 인구고령화, 정년연장의 글로벌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처럼 최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우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2000년에 이미 고령인구의 비율이 7%을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2018년에는 고령사회(고령인구비율 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비율 20%)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소요되는 연수가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는 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

행된 일본의 각각 소요연수 24년, 12년보다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14세이하 인구대비 65세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 [1] 도 급속히 상승하여 2010년에는 68.4, 2020년 119.1, 2060년에는 39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선진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정년연장 배경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비중 증가에 대한 고려이다. 생산가능 인구는 낮은 출산율 및 고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201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30만명씩 급속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의 구성에서도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25~49세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생산가능 인구중 높은 연령층인 50~64세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5~49세의 비중은 2010년 56.8%에서 2050년에는 45.2%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높은 연령층인 50~64세 인구 비중은 2010년 24.7%에서 2050년에는 14.5%p 증가한 39.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높은 연령층 비중의 증가는 자칫 경제의 잠재성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높은 연령층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참여를 통한 생산가능 인구의 확충이 요구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선진국들의 정년연장 내지 폐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 및 관련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따른 연금재정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고용에서의 연령차별 금지법(ADEA :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를 통해 연령을 이유로 채용, 해고, 보수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ADEA를 1978년 개정하여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였고, 1986년에는 연령상한을 제거하여 실질적으로 정년을 폐지하였다. 영국은 2006년 고용평등규칙에 의하여 65세를 기본 퇴직연령으로 정하였고, 65세 이상의 정년퇴직에 대해서는 연령차별의 예외로 하였다. 그후 65세 기본 퇴직연령에 대한 논의를 통해 2010년 7월 65세 기본 퇴직연령의 폐지 계획을 발표

주요 국가의 인구 고령화 속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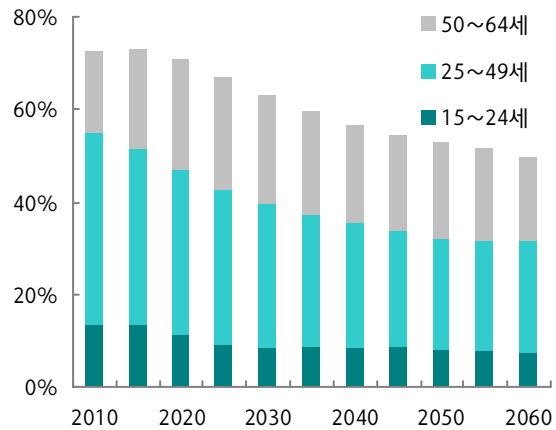
(단위 : 년도, 년수)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7%	14%	20%	7%→14%	14%→20%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주 : 도달연도는 고령화, 고령, 초고령사회
자료 : 통계청, 장기인구추계 결과, 2006.11

1)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x 100

연령계층별 생산가능 인구 추이(2010~2060)



자료 : 통계청, 장기인구추계 : 2010년~2060년, 2011.12

하고, 소정의 경과조치를 거쳐 2011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의 경우는 1994년 고연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60세 정년을 처음으로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2004년의 동법 개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65세 연금수급 개시에 대응하여 65세까지 고연령자 고용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과조치로 2013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상향하도록 하였다[2].

이처럼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의 빠른 고령화, 선진국들의 정년연장 추세 등과 더불어 정년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준비 미흡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년연장을 제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들은 신연금저축의 가입 용이 등으로 보다 체계적인 은퇴준비가 가능

정년연장의 의무화는 근로자, 금융기관, 기업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근로자들은 정년연장에 따라 근로소득 기간의 연장이 가능해져 은퇴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2.6%수준으로 국제감독기구의 권고수준 80% 및 적정소득 대체율 64.9%에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5.0%, 사적연금은 17.6%에 불과한 실정이다[3]. 이처럼 은퇴준비가 부족한 근로자들의 은퇴준비에 정년연장은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측면에서 조기수급 연령을 늦출수 있고, 연금수급 공백기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근로자들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이 남성의 경우 55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까지는 소득공백이 발생해 조기연금수령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한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지속적으로 늦추어지게 되어었어 근로자들은 많게는 4~5년정도의 연금수급 공백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퇴직연금 측면에서는 정년연장법에서 사업자와 근로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현재 55세이상 퇴직자들의 퇴직급여 수령을 보면 2012년 동안 수급금액기준 연금형태의 수

주요 선진국의 정년제도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정년	없음	없음	60세	65세
정년관련 법규	– 연령을 이유로 채용, 해고, 보수 등 차별금지(86년)	– 연령을 이유로 해고는 위법 (06년 65세 이상은 제외, 2011년 10월 폐지)	– 연금수급 연령 하회하는 정년설정 금지(01년)	– 기업은 정년연장, 재고용 또는 정년폐지 중 선택(04년)
연금지급개시연령	– 65세 (27년엔 67세로 상향조정)	– 여성 60, 남성 65세 (여성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년까지 65세)	– 60세 (83년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	– 65세 (13년 4월부터 시행)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정년연장, 어떻게 할것인가", 2012. 5

2) 한국노동연구원, "정년연장, 어떻게 할것인가", 2012. 5

3) 이봉주,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보험의 역할과 과제", 2012. 1

령은 0.3%인 반면, 일시금수령은 99.7%에 이르고 있다[3]. 따라서 근로자들은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연금형태로의 유지를 통하여 은퇴후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측면에서 근로자들은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금번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신연금저축 가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 같다. 신연금저축에서는 기존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저축 계약기간을 10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연금소득세도 고연령일수록 낮아지는 구조로 바뀌었다. 따라서 기존 연금저축의 계약기간 등 높은 가입요건으로 인하여 가입이 어려웠던 베이비붐 세대 등 50대 연령층은 신연금저축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은퇴준비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소득창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적 및 사적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의 부분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년연장으로 각종 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늦출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자들의 은퇴후 연금소득의 상승효과로 이어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은 연금시장의 확대에 대비 다양한 상품의 개발 등 선제적 대응전략 요구

한편 금융기관들은 정년연장에 따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연금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기관들은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근로자들의 연령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 그룹별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요구된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는 소득공백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기를 신연금저축의 최저기간인 5년에 맞추며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경우는 임금체계의 개편에 따라 DC나 IRP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퇴직급여의 연금화 유도를 통한 유지율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도 퇴직급여의 연금화 비율이 매우 낮은데 향후 임금체계의 개편에 따라 임금피크제 등이 보편화될 경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커질 수 있다. 이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6항에 의하면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정책당국은 퇴직금의 중간정산 예외조항에 대한 수정의 고려와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금우대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사적 연금의 연금 수령 개시연령이 55세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정년연장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제도의 개편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번 개정법에서 사업자와 근로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임금체계의 개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2016년부터 점진적 시행에 앞서 4~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근로자와 협의하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의 개편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금액기준으로는 연금수령이 3,456억원으로 2.6%, 일시금수령은 127,388억원으로 97.4%를 점유. (금융감독원, "2012년도 퇴직연금 영업실적", 2013. 2)

30대 직장인, 연금저축과 적극적 금융자산 운용 필요

최금융씨는 35세 직장인으로 60세 은퇴 이후의 노후 생활을 위해 월 37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은퇴 이후 국민연금 62만원, 퇴직연금 22만원, 주택연금 3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금융씨는 향후 가입하게 될 연금신탁을 통해 월 26만원 정도를 수령할 것으로 보여 총 월 23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 운용으로 연간 8.83%의 수익률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수익률은 투자성향별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적극투자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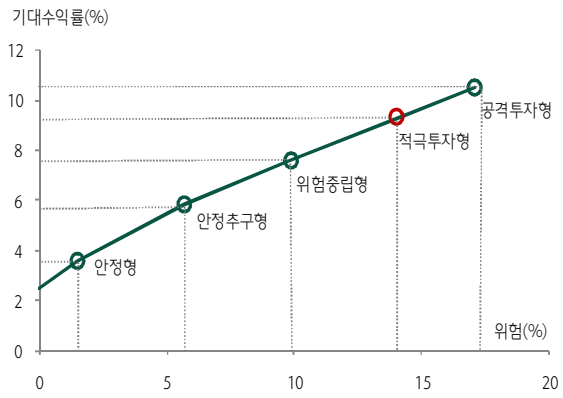
공격투자형을 포함한 적극투자형에 대한 6월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전월과 동일하여 자산배분 비중 변화는 없다. 국내 증시가 점진적 상승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미국, 유럽 및 일본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머징 시장과는 차별화를 보이는 양상이 전월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 시장은 저금리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매력이 높은 반면 이머징 시장은 산업생산 및 내수부진과 높은 물가상승률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양적 완화 중지 내지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채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더딘 상태로, 국채 금리 상승은 완만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하이일드 채권의 투자매력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외 증시의 상승국면에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관리를 위한 ELS 및 해외 채권형 투자의 병행은 여전히 필요하다.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자료 :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단위 : %)

자산구분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국내주식	5.0	15.0	20.0(-5.0)	32.5	45.0
해외주식	-	-	7.5(+7.5)	20.5	23.0
원자재	-	-	-	-	-
중위험형	-	-	-	9.5	9.5
ELS/ELD	10.0	12.5	15.0	10.0	10.0
국내채권	77.5	47.5	30.0(-2.5)	10.0	2.5
해외채권	-	17.5	20.0	15.0	7.5
현금성	7.5	7.5	7.5	2.5	2.5

자료 :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국내외 주식 및 펀드로 구성

성장성 높은 미국 대형주 투자 유효

국내주식형은 인덱스형, 중소형주형, 성장형, 가치형으로 구분 투자하고 개별 주식은 증권사 리서치센터 추천종목으로 랩이나 개별 포트폴리오로 운용한다. 인덱스형은 KOSPI200을 추종, 시장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교보악사파워인덱스를, 중소형주형은 성장성이 우수한 턴어라운드 및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1을, 성장형은 장기성장이 기대되는 성장주, 산업군 내 경쟁력 있는 핵심종목에 투자하는 트러스톤제갈공명을, 가치형은 저평가 중형가치주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고 매매회전율이 낮아 장기투자에 적합한 KB밸류포커스를 선정하였다.

해외주식형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선진국 비중이 이머징 국가보다 높다.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프랭클린템플턴재팬을, 미국은 경기회복세를 감안하여 미국 내 성장성이 높은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AB미국그로스에 투자하였고 이머징 국가는 중국본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위안화 절상수익까지 추구하는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에 투자하였다.

또한 저금리시대 대안상품으로 구조화상품으로는 ELS, ELF, ELT 등을, 중위험형 상품으로는 안정적 수익이나 배당이 기대되는 채권, 배당주 및 리츠 등에 분산투자하는 하나UBS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을 선정하였다.

국내채권형에는 저평가 종목 발굴을 통한 확정금리형 상품 대비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흥국멀티플레이에, 해외채권형에는 미국 하이일드 채권 및 미달러표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JP모건단기하이일드에 투자하였다.

한편 최금융씨가 가입하는 연금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으로 안정형과 채권형으로 구분된다. 기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보험사 및 자산운용사의 연금상품인 연금보험과 연금펀드에도 가입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상품으로 넘버원변액연금보험, 하나UBS인베스트연금펀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상품은 한국주택연금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을 활용할 계획이다.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자산	유형	상품명	운용사	비중	자산	유형	상품명	운용사	비중
	국내주식	인덱스형	교보악사파워인덱스(주식-파생)A1	교보악사	5%	해외주식	일본	프랭클린템플턴재팬(주식)A	프랭클린템플턴	10%
		중소형주형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1(주식)C1	미래에셋	5%		중위험형	하나UBS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	하나UBS	9.5%
		성장형	트러스톤제갈공명(주식)A	트러스톤	7.5%		구조화	ELS(ELF/ELT)		10%
		가치형	KB밸류포커스(주식)A	KB운용	5%	국내채권	–	흥국멀티플레이증권4호(채권)	흥국운용	10%
		–	주식랩 또는 개별주식포트폴리오	–	10%	해외채권	–	JP모간단기하이일드(채권)A	JP모건	15%
	해외주식	중국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 Ashare(H)(주식)A	ES	5%	현금성	–	MMF/MMDA/MMT	–	2.5%
		미국	AB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A	AB	5.5%	합계				100%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 정액형, 종신지급방식, 60세 시점 가입 예정(1억 3,150만원)							
연금저축신탁			하나은행 하나연금저축신탁, 안정형, 연간 102만원 납입							

주 1)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적극투자형 상품 포트폴리오를 의미
2) 유형별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상기 자산배분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바람

자료 : 하나대투증권

첨부 : 최금융씨의 노후 재무설계에 대한 주요 가정

1. 최금융씨(35세)는 60세에 은퇴하며 생명표에 의해 약 80세 전후에 사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에 대한 가정은 2011년 통계청이 조사한 베이비 부머들의 희망 노후생활비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월 370만원 안팎으로 조사

2. 최금융씨의 재무상태는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서 발표한 30~39세의 평균인을 적용. 아래 표는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주요 통계치를 요약. 실물자산 조정은 별도로 없으며 현재 보유 순실물자산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하기로 함

3.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하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주택가격 3억원을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에 가입하면 69.1만원, 82.8만원, 100.6만원, 124.2만원, 156.9만원을 지급

4.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2012) 자료로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퇴직 후 평균 국민연금수령액 62만원으로 가정하며 퇴직연금은 보험연구원에서 추정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인 35%와 12.5%를 감안하여 추산하였음

5. 연금신탁은 가처분소득에서 OECD가 발표한 한국의 저축률 2.7%를 곱한 저축액(연간 약 102만원)을 60세까지 납입하는 것으로 함. 연금신탁의 수익률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은행 평균 수익률 4.1%를 적용

6. 월 부족자금은 매월 필요한 생활자금에서 국민연금, 주택연금, 연금신탁을 차감한 금액이고, 월 부족자금의 60세 시점의 현재가치 합은 20년간 5년 단위로 4.0%, 3.5% 3.0% 2.5%로 0.5%씩 차감한 할인율을 적용

7. 현 시점에서 운용자산 금액은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이며(5,006만원) 요구수익률은 현 시점에서의 순금융자산을 운용하여 60세 시점에서의 월 부족자금의 현재가치의 합이 되기 위한 수익률로 함

8. 이상의 가정은 평균인에 대한 수치로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이 가능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요약

(단위 : 만원)

연령대	자산액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액	금융부채	실물부채	소득	비소비 지출	가처분 소득	저축액
30세 미만	9,614	4,970	4,644	1,441	1,153	288	2,896	401	2,495	67
30~39세	22,464	8,379	14,085	4,308	3,373	935	4,595	818	3,777	102
40~49세	33,132	9,476	23,658	6,519	4,674	1,845	5,395	1,035	4,360	118
50~59세	41,611	9,654	31,957	7,521	5,077	2,444	5,150	974	4,176	113
60세 이상	30,457	4,904	25,553	3,473	1,855	1,618	2,340	334	2,006	54
전체 평균	31,495	7,842	23,653	5,291	3,598	1,693	4,233	758	3,475	94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6월 국내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 개선을 바탕으로 점진적 상승 전망

5월 국내 주식시장은 한 때 엔달러 환율이 4년 만에 100엔을 돌파하는 악재로 급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증시의 랠리 지속으로 국내 증시의 상대적 가격 매력이 부각되고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면서 4월 하순부터 시작된 반등을 이어가면서 주가지수 2,000을 돌파하였다.

한편 5월 중순 이후 선진국 금리가 빠르게 반등하였는데 미국보다 일본의 금리반등이 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엔화약세 속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논의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 점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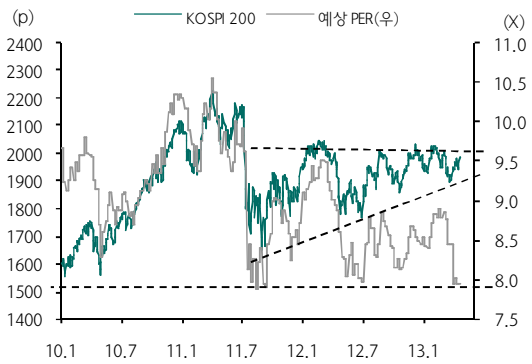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전망의 하향조정 압력이 크지 않아 이익전망에 대한 기대가 양호하게 형성되고 있고 국내 증시가 PER 8배 수준에서 주가가 상향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또한 뱅가드 이슈 관련 외국인 매물압력이 막바지 국면에 이르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회복 기대를 바탕으로 국내 증시는 점진적인 상승이 전망된다.

채권시장은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로 금리반등

5월 금통위의 예상밖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선반영 등으로 오히려 반등하였다. 6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으나 추가 금리인하 여부는 2분기 GDP성장률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과 금리 인하로 성장률이 높지는 않아도 한은의 성장 전망을 벗어나지 않고 2% 중반대가 되면 기준금리는 적정하다는 인식으로 시장금리 하단을 제한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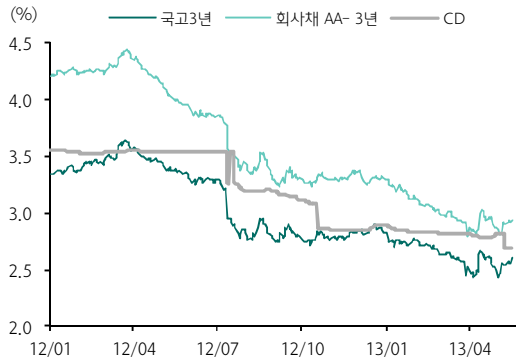
한편 엔저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나 다양한 요인으로 일본 금리가 급등하고 FRB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등으로 미국 금리도 상승하는 가운데 주요국 주가 상승세 등 안전자산 선호 축소현상은 국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OSPI와 PER 추이



자료 : Thomson Reuters, 하나대투증권

주요 금리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하나대투증권

해외시장은 이머징 시장 부진에 따른 선진시장과의 차별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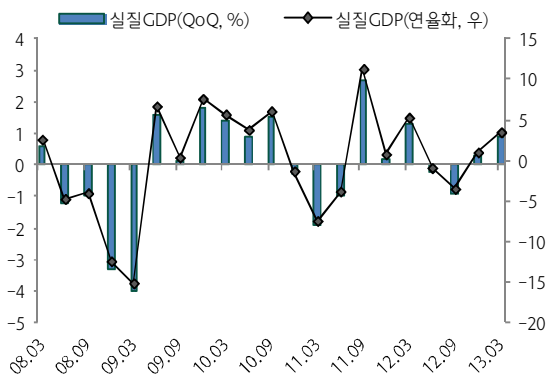
미국시장은 연초 이후 지속되어온 지수 상승세가 5월에도 지속되었다. 경제지표가 혼조를 보인 가운데 경제지표 중 제조업/비제조업 지수 등이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경제지표에 대해 주가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Fed의 저금리정책과 낮은 물가상승률이 주가상승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은 경기침체 속 재정긴축 완화 기대 및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소비지출이 개선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1분기 경제성장률을 견인하였다. 또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일본은행의 저금리 대출, 대기업들의 투자확대방안 발표 등으로 소비확대와 더불어 기업투자 증가는 일본주식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 브라질 등 주요 이머징 국가의 경기부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4월 주요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글로벌 IB들이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M2 증가율이 예상치를 상회하여 하반기 물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통화정책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브라질은 경제지표 혼조 속에 추가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나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연내 금리상승의 가능성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리츠시장은 지속적인 현금흐름 창출로 투자 매력이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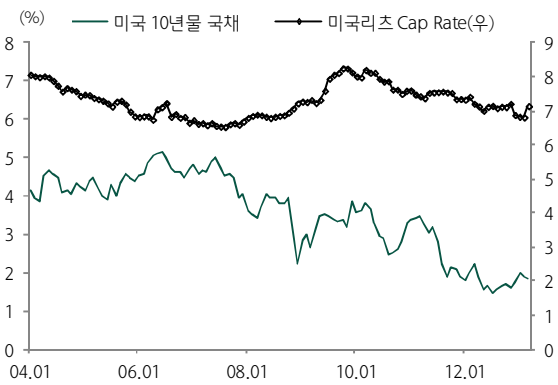
기존주택판매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양호한 주택지표 개선으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리츠는 연초 이후 20% 상승하였으나 Cap Rate(Net Operating Income/Sales Price)가 하락하고 있어 추가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리츠의 경우 홍콩 도심의 오피스가격이 상승 중으로 공실률 및 임대료 상승률이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과 여신확대로 부동산 지수는 양호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리츠Cap Rate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英,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인 DA형 도입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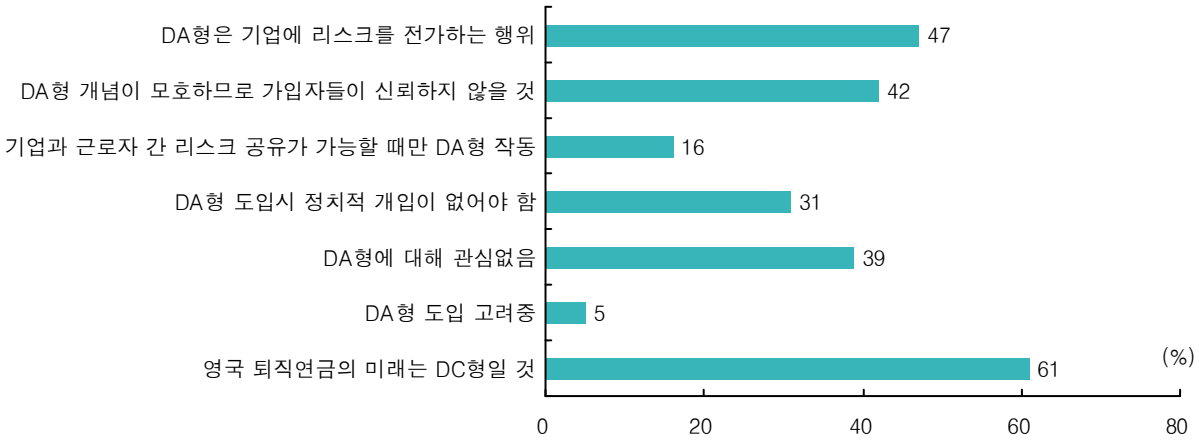
"영국 정부는 DB형 제도 유지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DB형과 DC형 제도 간 절충형 모델인 DA형 제도 도입을 추진"

영국 정부는 은퇴한 근로자에게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퇴직연금 제도인 DA형(Defined ambition, 확정야심형)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DA형은 '절충형 제도'로서 투자위험을 가입자가 모두 부담하는 DC형과 사용자가 모두 부담하는 DB형과는 달리, 투자위험을 반반씩 고르게 부담할 수 있게 설계된 제도를 의미한다. 그동안 지속되어온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 최종 월급에 기반한 연금 제도(final salary scheme)로서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확정된 수입을 주기 때문에 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은 DB형 구조에 기반한 연금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DA형 제도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여 그동안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DB형 제도를 개혁하려는 목적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영국 연금부 장관인 Steve Webb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DA형 제도는 기존 DB형 제도의 개선된 형태가 될 것이며 사용자(기업)와 가입자(근로자) 간의 투자 리스크 공유를 통해 기존의 DB형 제도와 DC형 제도 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owers Watson은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 및 연금 펀드 등의 이해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DA형 제도의 전망과 향후 DB형 제도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진단하고자 하였다.

DA형 제도의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60% 이상은 DC형 제도가 영국 퇴직연금의 미래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새로운 형태의 DA형 제도는 연금 가입자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이와 달리 DA형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도 5%를 차지했으며 이 외에 DA형 제도는 기업에 리스크를 전가하는 행위(47%)라는 견해와 DA형 개념이 모호

DA형 퇴직연금 제도 전망에 대한 응답내용



하므로 가입자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42%), 기업과 근로자 간 리스크 공유가 가능할 때만 DA형 제도가 작동(16%), DA형 제도 도입시 영국 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31%)는 의견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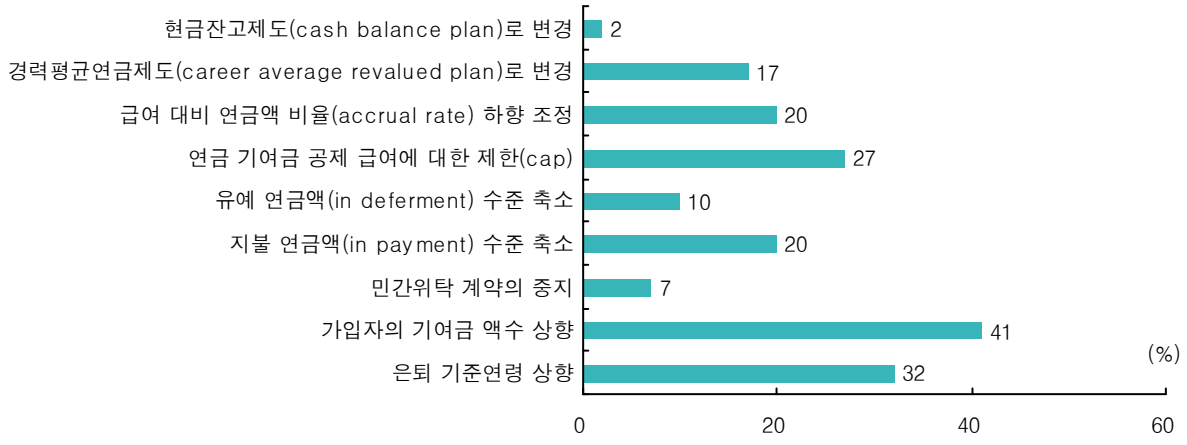
한편 설문 대상자들에게 최근 3년간 DB형 제도 설계에 변화를 주었던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DB형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우, 확정된 급여(benefit) 제공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설계에 변화를 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인 경우 가입자가 납입하는 기여금액을 높이거나(41%) 연금액을 수령하는 은퇴 기준연령을 상향하는 방법(32%)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연금 기여금을 공제한 급여에 대한 제한(27%)을 하거나 공제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인 수급률을 하향 조정(20%)하는 등의 제도 변경 조치도 있었다. 이 외에도 DB형 제도에 가입한 응답자 중 DA형 외에 DB형과 DC형 제도의 절충형 제도인 현금잔고제도(cash-balance plan)로 변경(2%)한 응답자와 경력평균연금제도(career average revalued plan)로 변경(17%)한 응답자들도 있었다.

현재 영국 정부가 제시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투자 리스크 공유를 위한 절충형 제도는 현금잔고제도와 경력평균연금제도의 2가지 형태로 현금잔고제도는 가입자들이 확정된 연금 자금을 받지만 이 자금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재투자를 해야하는 것을 말하며, 경력평균연금제도는 최종 급여에 기반한 연금제도와는 달리 평균 급여에 의해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제도로 기존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적어진다.

현재 전세계적인 퇴직연금 시장의 흐름은 대다수를 차지하던 DB형이 거시경제지표의 변동성 확대와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으로 인해 DC형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퇴직연금의 사회보장 기능 강화와 전사업장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DB형이 2012년말 적립금 기준으로 여전히 대다수(73.8%)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기업의 비용부담이 심화될 경우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영국 등과 같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전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른 절충형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대응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2013 Retirement Confidence Survey”, EBRI, 2013.3)

최근 3년간 DB형 연금제도 변경사항 응답내용



사적 연금제도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로 고령화 리스크 대응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사적 연금제도 혜택 강화와 가입자보호 및 실질적 연금 전환 대책 마련을 통해 사적 연금제도의 내실화가 필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복지 분야 지출 심화, 소득 양극화, 저금리·저성장 구조 등의 사회복지 환경의 급변에 따른 공적 연금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사적 연금의 역할과 기능 강화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외형적으로 사적 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2007년 110.8조에서 2012년 약 270조원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퇴직연금 도입률의 경우, 13.4%에 불과해 90% 이상의 도입률을 보이는 호주 등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31.8%의 가입률을 보였던 2008년에 비해 2012년 21.4%로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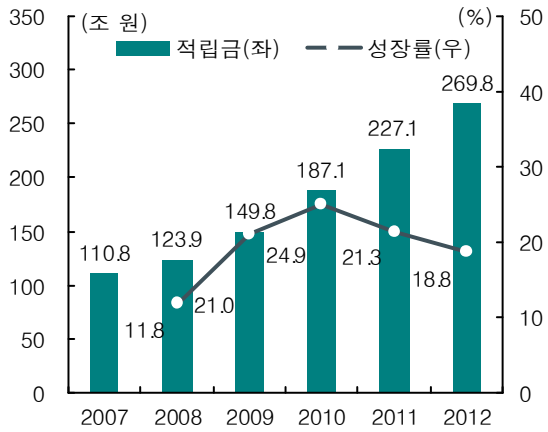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OECD에서 조사한 글로벌 사적 연금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사적 연금과 관련한 가입률, 연금수령, 수급권 보호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18개국 중 16위로 D등급에 머물렀으며 국제기구 권고 사적 연금 소득대체율(40%)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적 연금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 문제와 가입자보호 문제, 법적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된 현행 퇴직급여제도, 연금전환과 공적연금 연계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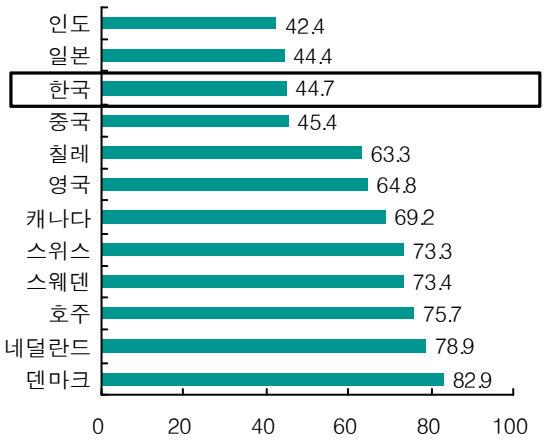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입 보조금 지원과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등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적 연금제도 혜택 강화는 물론 가입자 보호 중심으로 사적 연금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급여제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고 공적 연금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유기적인 연계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제 혜택 측면에서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 등과 같은 세제 체계 개선을 등을 통해 사적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적 연금의 역할과 정책 방향", 보험연구원 연금정책 세미나, 2013.3)

사적 연금의 적립금 규모 및 성장률



글로벌 사적 연금제도 평가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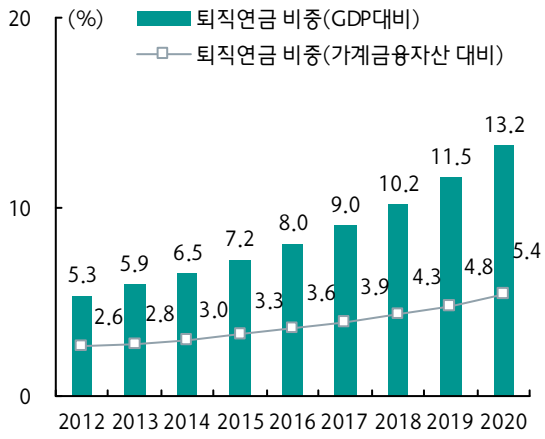


사적연금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및 자원배분 집중 필요

"사적연금의 비중을 국민연금 이상으로 높이는 길이 인생 100세 시대에 대처하는 현명한 전략"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여러 제약이 따르므로 적정한 소득대체율 확보를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연금학회에서 발표된 '사적연금 적립금 추이와 향후 전망' 에 따르면 향후 사적연금 적립금 중장기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3년 약 298조원에서 2020년에는 6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연금시장의 절대강자 위치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가계금융자산 대비 퇴직연금 비중 전망



이는 민간 부문의 비중이 높은 외국의 상황과 비교할 때 매우 다른 양상으로 34개국 중 공적 부문의 비중이 더 큰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적연금의 비중을 국민연금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과 자원배분 집중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의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는 경향이 퇴직연금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퇴직연금을 통한 은퇴자산 축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단일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립금 운용전략을 기술한 투자정책서(IPS) 완비를 통한 상세한 가입자 보호는 물론 개인연금의 세제혜택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개인연금이 가교연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적 은퇴자산을 주력 산업으로 영위하는 금융회사 역시 고객의 상황에 적합한 콘텐츠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출시를 통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사적연금 적립금 추이와 향후 전망”, 한국연금학회 2013 춘계 학술대회, 2013.6)

해외 퇴직연금 의무화 사례

분류	국가	내용
사용자 기여 의무화	호주	· 9% 기여를 의무화
	스위스	· 사용자가 직접 연기금을 설립, 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근로자에 제공
	아이슬란드	·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금으로 조달
근로자 기여 의무화	헝가리	· 연금개혁으로 강제가입 제도개편
단체계약을 통한 의무화	네덜란드	· 산업별로 기업연금기금 운영
	스웨덴	· 기업연맹과 노조 간 단체협약
	덴마크	· 단체협약에 기초한 강제 DC형 제도

연금통장
연금수급자 전용 수시입출금 예금

월급통장을 대체하여 다양한 혜택 제공

연금통장은 4대 연금(국민 · 공무원 · 군인 · 사학),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각종 연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시입출금 예금상품이다. 연금통장은 지난 2010년부터 약 712만5000명에 이르는 국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베이비부머들을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한 상품이다.

연금수급자가 연금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정하면 기존 젊은 직장인을 위한 '월급통장'에 주로 제공되던 이체 수수료, ATM 출금 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우대 금리, 무료 보험 가입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고령자 특화 금융 상품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할 때 주거래 고객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의미가 있으며, 고객 입장에서도 퇴직 후 월급통장이 없어도 각종 수수료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상품이다.

수령액 제한이 없으며 대출이 가능하다는 특징

국내에서 연금통장과 유사한 상품으로는 국민연금안심통장이 출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적인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자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이다. 즉, 연금통장과는 달리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수급은 모두 가능하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은 수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연금통장은 월 수령액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는 반면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권자 보호금액인 월 150만원까지만 해당 통장을 통해 수령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 약정에 있어서도 연금통장은 약정이 가능한 반면 국민연금안심통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금수령자들은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령자 전용 수시입출금 통장을 적극 활용하되 본인의 재정 사항에 맞는 상품을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연금수급자 전용 수시입출금통장 특징 비교

	연금통장	국민연금안심통장
가입 대상	모든 종류의 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수령 한도	없음	월150만원 한도
통장 대출 한도 약정	가능	불가능
압류대상 적용 여부	적용	비적용
공통점	각종 혜택 제공 – 우대 금리 적용 (일반 수시입출금 예금 금리 + α) –수수료 면제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체 수수료, ATM 이용 수수료 등)	

하나금융그룹

행복연금통장

연금수급자 전용통장으로 행복디자인하세요

연금 수령계좌 지정 및 매월 이체시

최고 연 **2.0%** (2013.4.1현재/세전)

아래 대상자의 경우 기본이율 연 1.7% (매월 연금 이체시, 세전)

-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 **4대연금 수령자**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 **하나은행 가입 개인연금저축 수령자 및 하나은행 가입 퇴직연금 수령자**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자**
- **하나은행 역모기지론 수령자**

추가요건 충족시 우대이율 연 0.3% (아래 우대금리 기준에 따름)

- 부수거래 우대금리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 해당)
  - 이 예금에서 당행 적립식예금 월 10만원이상 자동이체 납입 시
  - 이 예금에서 하나SK신용(체크)카드 월 30만원이상 결제 시

※ 산업재해보상보험 수령자 우대금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이체자로 하나SK카드 이용금액을 매월 10만원 이상 결제 시 이자 결산일에 연 0.5% 추가 우대 (산업재해보상보험 수령자에 한해 최고 연 2.5% 적용)

수수료 면제 혜택 (매월 연금 이체시)

- 시중 은행 ATM기에서 연금인출수수료 면제 (월 10회)
- 하나은행, 외환은행 영업시간외 ATM기 연금인출수수료 및 타행이체수수료 무제한면제
-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무제한면제
- 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 무제한면제

※본 통장은 최근 결산일 평균잔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적용이 안됩니다.(단, 만65세이상 가입자 제외)

행복디자인하세요

하나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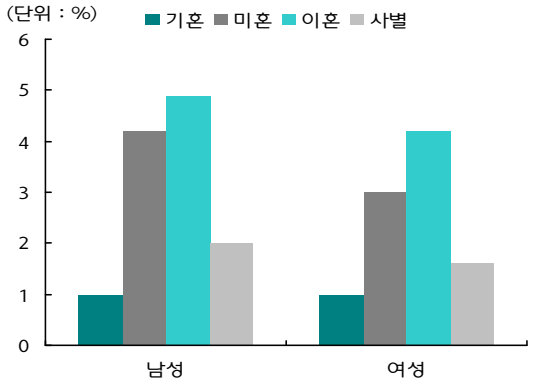
본 홍보물은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은퇴 이후 최고의 친구 – 배우자

'고독사', '무연사' 외로운 죽음이 늘어난다

최근 노인들의 자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의하면 자살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80세 이상의 자살률이 20대의 자살률보다 무려 5배나 높았다. 이미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34개 국가 중 1위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8.1명으로 OECD 국가간 평균이 11.3명인데 비해 2배 이상 높다. 노인들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원인은 고독, 빈곤, 외로움 등 3苦(고)때문이다. 가족 해체의 가속화로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이 생활고와 질병으로 고생하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또한 사별,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황혼이혼은 독거노인의 증가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문제 등과도 연관되므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은퇴 이후 맞이하는 노후를 부부가 함께 누린다면 적어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혼인상태별 자살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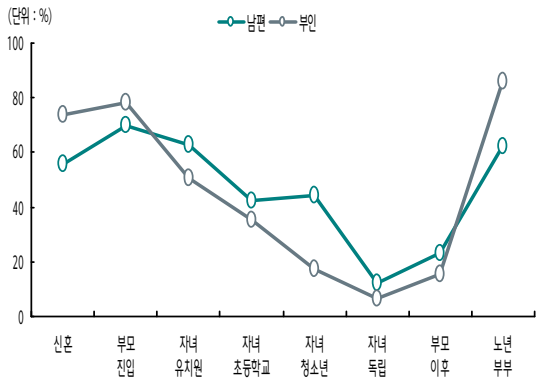
| 자료 : 박세진, "혼인상태에 따른 자살률의 동향에 관한 연구", 2008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고 이제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노년에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왜일까?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부간의 갈등 발생

사실 은퇴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자녀의 양육, 교육과 관련된 시간적, 노동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부부관계가 신혼 초기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은퇴 후에 부부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회생활과 직업에 전념하던 남편이 은퇴로 인해 주된 생활 장소가 가정으로 바뀌고 가정생활에도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부부간의 마찰이 발생한다.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회사 직원을 대하듯이 부인에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부부싸움이 늘어나게 된다 .

생애 주기별 결혼만족도



| 자료 : Schaie W& Willis S, "Adult Development and Aging(5th)", 2001

수십 년을 서로 다른 생활 환경과 경험을 하였던 부부가 은퇴 이후 갑자기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 동안 서로 다른 가치관을 쌓아온 부부간의 견해와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는 적응기가 당연히 필요하다.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법

결혼만족도는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한다. 항상 행복할 것이라 믿고 한 결혼이지만 장거리 마라톤인 결혼생활에도 마찰과 굴곡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부부간에 잔소리보다는 자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하여 서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추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만 은퇴 후 갑자기 시작하려면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은퇴 전부터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남편이 회사에서 은퇴했듯이 부인도 집안일에서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남자는 퇴직 후 은퇴하여 비교적 여유롭게 생활하지만 부인은 여전히 집안일 등에 치여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 주말을 이용하여 요리학원을 다니는 중년 남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함께 외식을 하거나 남편이 음식을 차려준다 던지, 설거지와 청소 같은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등 대화를 통하여 서로간의 역할을 분담한다면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셋째, 은퇴 후에는 재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영역인 가족, 건강, 취미, 여가, 사회 활동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삶을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없는 상황하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동안 소홀했던 가족들과의 여행, 끝없는 야근과 음주로 치쳤던 내 몸을 위해 배우자와 함께 하는 운동, 그 동안 잊고 지냈던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 등과 같은 행복한 일들에 대한 계획을 배우자와 함께 만들어보자. 생각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날 것이다. 여행이나 취미생활 등은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열정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부부의 조화

1. 떨어지지 말고 되도록 함께 다녀라.
2. 교대로 화내고 동시에 소리 지르지 말라
3. 남편(아내)의 약점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
4. 확실한 증거 없이 아내(남편)의 실수나 허물을 지적하지 말라.
5. 냉전은 해 떨어지기 전에 끝내라.
6. 아직 부부로 있는 이상 의심하지 말라.
7. 아내들이여, 들릴 만큼 한숨 쉬지 말라.
8. 남편들이여, 소리 지르기 전에 두 번만 심호흡을 하라.
9. 오늘 아내(남편)를 어떤 말, 어떤 행동으로 사랑했는지 반성해보라
10. 그대가 용서받은 것을 잊지 말고, 그대도 배우자를 용서하라.

부부 사랑의 기법

1. 항상 서로가 존중하는 태도와 예의를 갖춘다.
2. 가끔 둘이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로 대화하고 분위기 있는 장소를 찾아간다.
3. 좋은 면으로 서로 같아지기 위해 노력한다.
4.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취미생활을 개발한다.
5. 서로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 장점을 취득 활용한다.
6.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한 방에서 잠을 잔다.
7. 주말여행을 가거나 여가를 둘이서 보내는 여유를 갖는다.
8. 장래 계획을 항상 같이 만든다.
9. 친구나 친척, 이웃보다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란 점을 잊지 않는다.
10. 서로의 건강상태를 살펴주고 상의하면서 서로를 돌봐준다.

하나은행, 미얀마 에이야와디은행과 본격적인 교류 확대

하나은행은 미얀마 에이야와디은행에 선진금융 기법 전수 등 양행간 본격적인 교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 미얀마 양곤 사무소 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11월에는 에이야와디 은행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추진하는 등 2015년 미얀마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파생금융상품 리더로 우뚝 선 하나대투증권

하나대투증권은 머니투데이가 주최하는 2013 대한민국 IB대상에서 최우수 파생금융상품 리더로 선정되었다. 동 사는 DLS로 기업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리스크 헤지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원자재에서 신용, 금리, 통화에 이르기까지 파생금융상품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환은행, 중소/개인사업자를 위한 『KEB Smart-Tax 서비스』 시행

외환은행은 중소/개인 사업자를 위한 무료 원-클릭 세무서비스인 『KEB Smart-Tax』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서비스는 세무지식이 부족한 중소/개인 사업자를 지원하며, 금융권 최초로 각종 보고서 작성 뿐만 아니라 단 한번의 버튼 클릭으로 세무신고 및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하나생명과 하나SK카드가 함께하는 보험료 카드납부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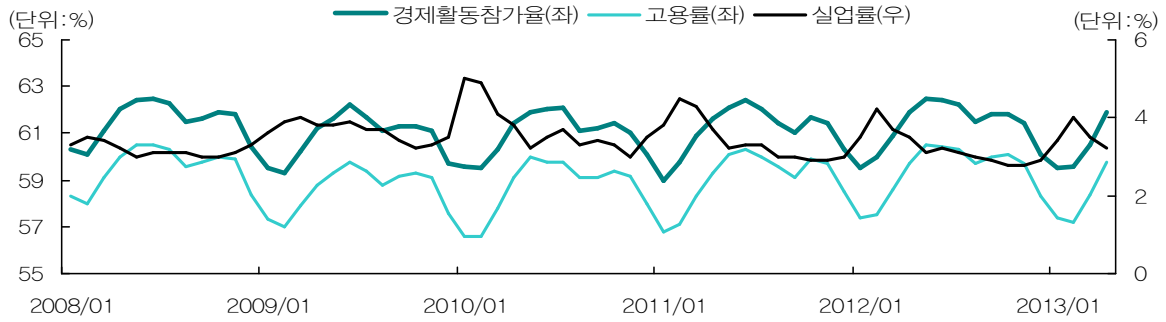
하나생명은 하나SK카드와 함께 5월 15일~7월 31일까지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하나생명 보장성 보험 신규가입 및 기존고객 중 하나SK카드로 납부방법을 변경한 고객에게 5천원 캐시백 제공, 100명을 추첨하여 기프트카드 5만원권 제공, 페이스북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커피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경제 활동

통계청

1. 경제활동 및 고용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8	61.5	6.5	63.6	75.2	80.1	72.0	37.7	59.5	5.9	59.1	72.9	78.4	70.6	37.2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1~4														
2013.3	60.5	6.6	61.0	74.6	79.4	73.5	37.5	58.4	6.0	55.8	72.2	77.5	71.9	36.6
2013.4	61.9	7.2	64.0	74.9	80.3	74.3	39.7	59.8	5.5	56.5	73.4	78.3	73.5	39.7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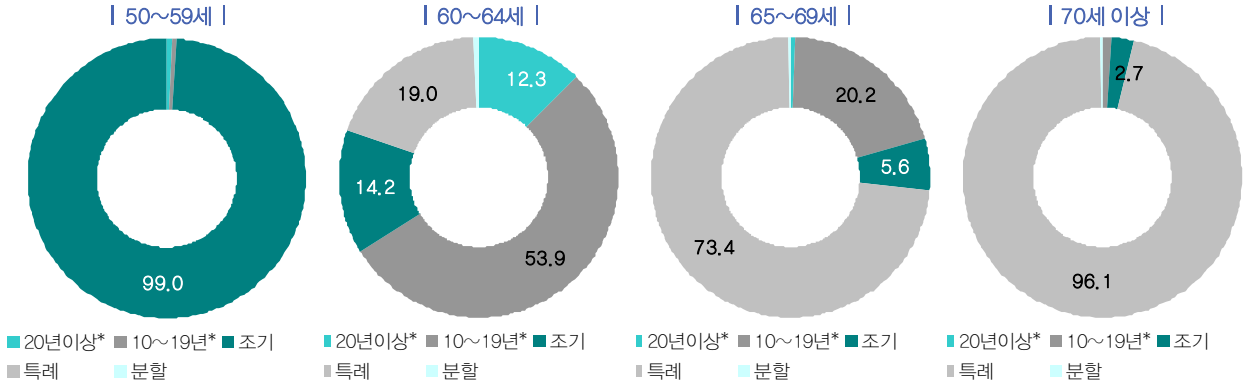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

1. 가입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2	20,183,358	1,208,903	11,476,447	8,412,698	1,924,888	6,487,810	201,531	92,682
2013.3	20,264,277	1,223,067	11,533,221	8,437,985	1,932,246	6,505,739	197,576	95,495

2. 2013년 3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주 : *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단위 : 건, 억원)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12	1,124	17,474
2010.12	2,016	30,361
2011.12	2,936	41,000
2012.12	5,013	69,006
2013.1~4	1,633	24,537
2013.3	381	4,225
2013.4	308	3,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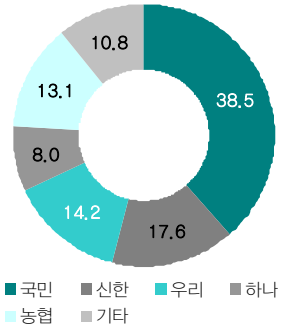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추이

2. 2013년 4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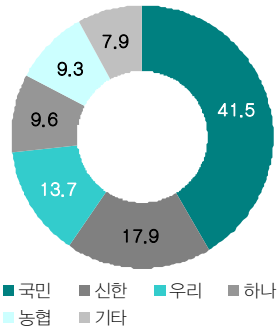
(단위 : 억원)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1,228	77,481
신한은행	489	33,401
우리은행	453	25,633
하나은행	255	17,957
농협	419	17,320
기타	344	14,800
합계	3,188	186,592

보증공급액 기준



잔액 기준



퇴직연금

노동부, 금융감독원

1. 2013년 3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단위 : 명, 건)

구분	근로자				사업자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D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7,327,399	5,053,062	1,222,478	85,704	1,180,011	77,962	90,077	43,758
생명보험	2,974,345	2,696,354	169,261	3,604	208,511	70,411	15,390	1,781
손해보험	1,011,189	952,680	55,033	252	21,822	1,933	16,338	223
증권	2,593,903	2,347,706	136,080	278	119,134	2,931	6,228	148
근로공단	68,384	–	66,681	477	20,342	–	20,116	226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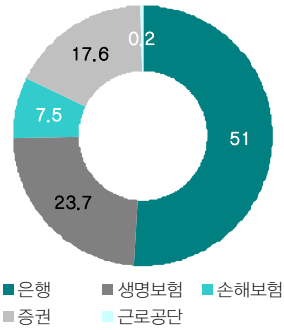
(단위 : 개소, %)

구분	합계	DB형 단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단독도입		기업형IRP 도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10	189,644	64,139	33.8	4,142	2.2	92,215	48.6	29,148	15.4
2012.11	194,209	65,531	33.7	4,129	2.1	95,317	49.1	29,232	15.1
2012.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1	207,319	69,012	33.3	4,641	2.2	103,716	50.0	29,950	14.4
2013.3	215,962	70,868	32.8	4,924	2.3	109,820	50.8	30,350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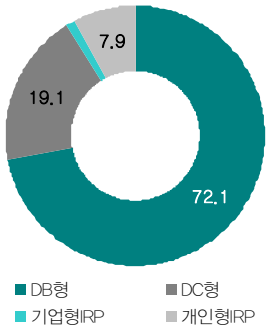
3. 2013년 3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687,349	495,243	131,285	6,616	54,205
은행	350,236	220,867	85,401	6,416	37,552
생명보험	163,089	137,791	18,168	160	6,970
손해보험	51,870	45,802	4,236	10	1,822
증권	120,932	90,782	22,278	18	7,854
근로공단	1,223	0	1,203	13	7

업권별 적립금 현황



상품 유형별 적립금 현황



4. 2013년 3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단위 : 억원, %)

구분			DB형		DB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		249,611	50.4	78,392	59.7	5,767	87.2	34,549	63.7	368,319	53.6
	금리확정형보험		170,512	34.4	13,195	10.1	111	1.7	6,980	12.9	190,798	27.8
	금리연동형보험		24,067	4.9	4,616	3.5	52	0.8	1,181	2.2	29,916	4.4
	국채		529	0.1	1,109	0.8	0	0.0	1,641	3.0	3,278	0.5
	통안증권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정부보증채		0	0.0	0	0.0	0	0.0	0	0.0	0	0.0
	원리금보장ELS		35,090	7.1	1,944	1.5	0	0.0	2,391	4.4	39,425	5.7
	RP		7,733	1.6	1,575	1.2	1	0.0	827	1.5	10,136	1.5
	발행 및 표지어음		0	0.0	131	0.1	0	0.0	35	0.1	166	0.0
	기타		12	0.0	66	0.1	0	0.0	27	0.0	105	0.0
원리보장금 소계			487,554	98.4	101,028	77.0	5,930	89.6	47,631	87.9	642,144	93.4
실적배당	실적배당형 보험		166	0.0	1,556	1.2	9	0.1	350	0.6	2,082	0.3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833	0.2	8	0.0	0	0.0	8	0.0	849	0.1
		혼합형	1,116	0.2	13,321	10.1	187	2.8	1,398	2.6	16,023	2.3
		채권형	2,762	0.6	12,660	9.6	414	6.3	2,004	3.7	17,840	2.6
		재간접	1	0.0	173	0.1	0	0.0	25	0.0	199	0.0
		부동산/실물/특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344	0.1	537	0.4	33	0.5	40	0.1	955	0.1
		집합투자증권 소계	5,211	1.1	28,255	21.5	643	9.7	3,827	7.1	37,946	5.5
	직접투자		223	0.0	100	0.1	0	0.0	261	0.5	585	0.1
실적배당 소계			5,444	1.1	28,355	21.6	643	9.7	4,088	7.5	38,531	5.6
대기성 자금			2,245	0.5	1,902	1.4	42	0.6	2,485	4.6	6,674	1.0
총계			495,243	100.0	131,285	100.0	6,616	100.0	54,205	100.0	687,3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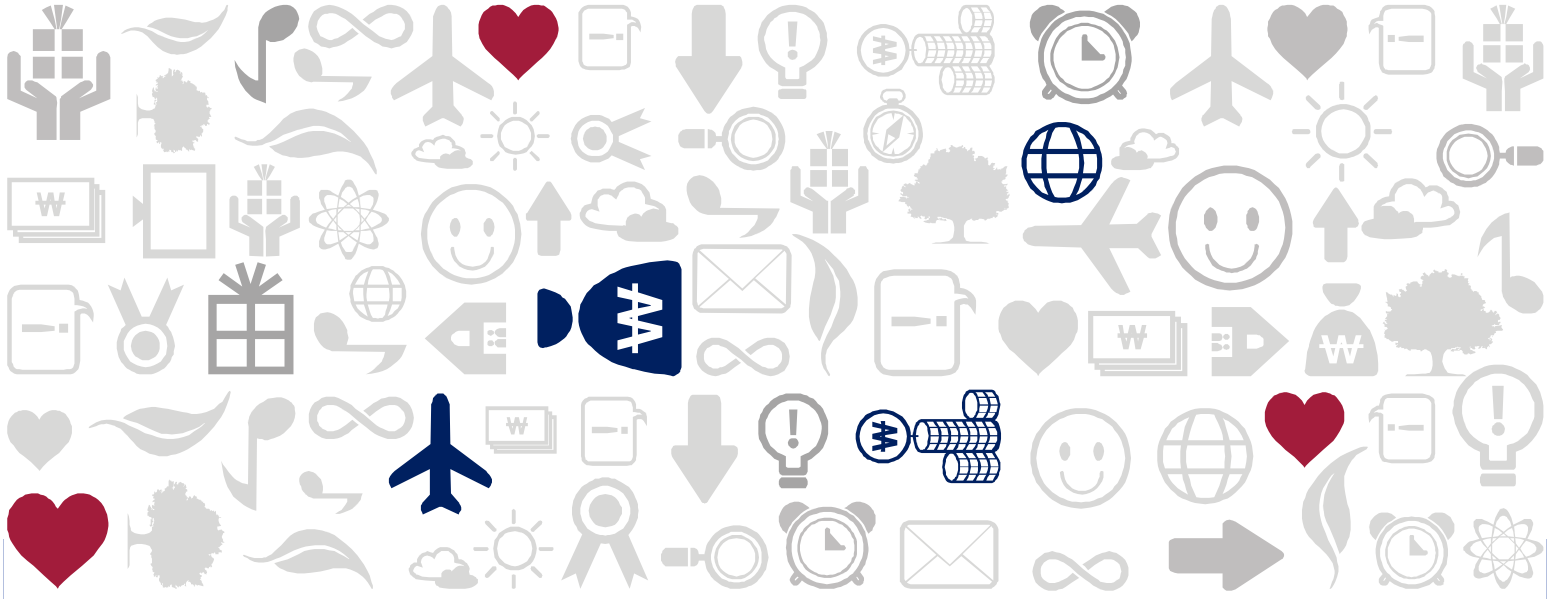
5. 2013년 3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원리금보장형	330,498	94.4	156,176	95.8	50,866	98.1	103,397	85.5	1,206	98.6
실적배당형	16,266	4.6	6,175	3.8	801	1.5	15,283	12.6	7	0.6
기타	3,472	1.0	738	0.5	203	0.4	2,252	1.9	9	0.8
합계	350,236	100.0	163,089	100.0	51,870	100.0	120,932	100.0	1,223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

www.hanaif.re.kr



KEB 외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KEB행복가이드 2013.06 [No.03]

150-70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Tel 2002-2200 Fax 2002-2610